2019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모의논술
출제 의도 및 문제 해설 (인문 · 사회)



연세대학교 입학처

모의논술문제

2020학년도 연세대학교 모의논술 문제(인문·사회계열)

제시문 <가>

소크라테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네. 이집트 나우크라티스 지방에 테우트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숫자와 계산법, 기하학, 천문학은 물론이고, 장기와 주사위 놀이, 게다가 문자까지 발명했다고 하네. 어느 날 테우트는 이집트의 왕인 타무스를 찾아가 자신이 만든 기술들을 보여주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기술들을 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네. 왕은 그 기술 하나하나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물었고, 테우트는 상세히 설명했지. 그런데 대화가 문자에 이르자, 테우트가 이렇게 말했다네. "왕이여, 이 배움은 이집트 사람들을 더욱 지혜롭게 하고 기억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억과 지혜의 묘약으로 발명된 것이니까요." 그러자 타무스가 이렇게 대답했네. "기술이 뛰어난 테우트여. 그대는 문자의 아버지로서 그것에 대해 선의를 품고 있기에 그렇게 말하겠지만, 내 생각은 정반대요. 왜냐하면 문자는 그것을 배운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에 무관심하게 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망각을 낳아, 그들은 글에 대한 믿음 탓에 바깥에 있는 흔적에 의존할 뿐 스스로 기억해 내려하지 않기 때문이오. 그러니 당신이 발명한 것은 기억의 묘약이 아니라 상기의 묘약이고, 그대가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 지혜의 겉모양이지 참모습이 아니라오. 그들은 그대 덕분에 많은 것을 듣게 되고, 자신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대부분 그들은 무지하고 누군가를 상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니 그들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겉보기에 지혜로운 자일뿐이요. 그러니 기술을 문자에 담아 남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문자로부터 무언가 명확하고 확실함이 생겨나리라는 생각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일세. 그는 글로 쓰인 말들이 이미 앎을 가진 사람에게 상기시키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네.

파이드로스: 지당한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 글쓰기에는 뭔가 이런 기이한 점이 있으니, 사실 그것은 그림 그리기와 똑같네. 그려진 것들은 살아 있는 생물처럼 보이지만, 자네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무겁게 침묵한다네. 글도 똑같다네. 자네에게는 그것들이 마치 무언가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글에서 무언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문을 던지면 그것은 언제나 한 가지의 같은 것만을 가리키지. 일단 글로 쓰이고 나면, 모든 말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주변과 그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사람들 주변을 똑같이 맴돌면서, 말을 걸어야 할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가려내지 못하네. 참된 인식과 함께, 배우는 자의 영혼 속에 쓰인 말은 자신을 지킬 힘이 있고, 상대해서 말을 해야 할 사람들과 침묵해야 할 사람들을 가려낼 줄 안다네.

파이드로스: 당신은 앎이 있는 자의 말을 일컬어 살아 있고 영혼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군요. 글로 쓰인 말은 그것의 영상(映像)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겁니다.

제시문 <나>

By contrast with natural, oral speech, writing is completely artificial. There is no way to write 'naturally.' Oral speech is fully natural to human beings in the sense that every human being in every culture who is not physiologically* or psychologically disabled learns to talk. To say writing is artificial is not to condemn it but to praise it. Like other artificial creations and indeed more than any other, it is truly invaluable and indeed essential for the realization of fuller, interior, human potentials. Technologies are not mere exterior aids but also interior transformations of consciousness, and never more than when they affect the word. Writing heightens consciousness and it also provides for consciousness as nothing else does. Oral cultures indeed produce powerful and beautiful verbal performances of high artistic and human worth. Nevertheless, without writing, human consciousness cannot achieve its fuller potentials, cannot produce other beautiful and powerful creations. In this sense, orality needs to produce and is destined to produce writing. Literacy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not only of science but also of history, philosophy, explanatory understanding of literature and of any art, and indeed for the explanation of language (including oral speech) itself. There is hardly an oral culture left in the world today that is not somehow aware of the vast complex of powers forever inaccessible without literacy.

Technologies are artificial, but — paradox again — artificiality is natural to human beings. Technology, properly interiorized, does not degrade human life but on the contrary enhances it. The use of a technology can enrich the human mind, enlarge the human spirit, and intensify its interior life. Writing is an even more deeply interiorized technology than instrumental musical performance is. With telephone, radio, television, and various kinds of digital media, electronic technology has brought us into the age of 'secondary orality,' by contrast with primary orality, which refers to thought and its verbal expression totally untouched by any

knowledge developed through writing or print. But secondary orality is essentially a more deliberate and self-conscious orality, based permanently on the use of writing and print. Secondary orality is both remarkably like and remarkably unlike primary orality. Like primary orality, secondary orality has generated a strong group sense, for listening to spoken words forms hearers into a group, a true audience, just as reading written or printed texts turns individuals in on themselves. But secondary orality generates a sense for groups immeasurably larger than those of primary oral culture as is indicated by McLuhan's 'global village.' Moreover, before writing, oral folk were group-minded because no possible alternative had presented itself. In our age of secondary orality, we are group-minded self-consciously and programmatically. The contrast between oratory in the past and in today's world well highlights the contrast between primary and secondary orality. Radio, television, and social media have brought major political figures as public speakers to a larger public than was ever possible before modern electronic developments. Thus in a sense orality has come into its own more than ever before. But it is not the old orality. The old style oratory** coming from primary orality is gone forever.

* physiologically: an adverbial form of physiology, meaning a branch of biology that deals with the functions and activities of life or of living matter (such as organs, tissues, or cells) and of the physical and chemical phenomena involved

** oratory: the art of speaking in public eloquently or effectively

제시문 <다>

글쓰기와 글 읽기는 사치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여가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9세기의 감옥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몰두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었을까? 감옥은 반체제 인사들의 또 다른 대학이었으며, 최상의 도덕적 자각을 얻을 수 있는 장소였다. 서구 자본주의와 동구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사회적 항거의 실험실은 독재 체제 아래의 강제수용소와 포로수용소였다. 1840년부터 1930년까지 유럽의 감옥에 수감되었던 이들의 명단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 속에서 유명한 사회주의자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어디에서나 쫓기는 신세였던 예전의 사회주의는 국경을 넘는 일에 능숙하게 되었고, 따라서 유럽 문화가 낳은 고유한 산물로서 등장할 수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이 유럽 대륙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음으로써 서신 교환이 촉진되었고, 따라서 지식인들의 창조성이 꽃필 수 있었다. 그들의 몸은 자주 만나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서로 더 가까이 있었다. 확실히 사회주의적 글쓰기는 서간문학에 빚을 지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론적 작업의 절반을 편지로 수행했으며, 사실상 그들의 모든 정치적 활동은 우체통을 거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오늘날 각종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더욱 사교적으로 변해가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는 점점 더 무지해지고 있다. 대화는 늘어났는데, 논쟁은 줄어든 것이다. 전화는 서신의 기술을 파괴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고를 합리화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지니고 있었던 권위는 손상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전화 수화기를 붙들고 복잡한 원리와 주제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거의 없다. 우리는 수다를 떨기 위해 전화를 사용한다. 사소한 말들의 홍수 속에서 보편적인 성격을 띠는 거창한 논의는 이제 개인의 내밀한 장신구 비슷한 것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텔레비전을 봐야만 하고, 따라서 집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는 말하자면 '자발적인 자택 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의 집은 곧 그의 성이다"라는 속담 아래 깔린 의미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만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텔레비전은 고립된 개인들에게 일방적인 말을 전달할 따름이다. 또 휴대전화는 끝없는 일대일 관계일 뿐이며, 우리의 머리에서 보편적인 것을 몰아낸다. 전자우편(e-mail)이 서신 교환의 장점을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우편'이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로는 편지보다 대화에 가깝기 때문이다. 간단한 메시지를 빠르게 주고받는다는 특성 때문에 전자우편은 글이라기보다는 말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짧고 일시적이고 즉흥적이며 대개 감정적이다. 이러한 구술적 성격의 글쓰기에는 일관된 논리가 들어설 여지가 없다. 전자우편은 사람들이 함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사유를 정립해나가는 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텔레비전, 휴대전화, 인터넷 역시 세계화를 위해서는 좋은 것이지만, 사람들 간 연대의 유기적인 성격을 감소시킴으로써 세계시민주의에는 해로운 것이다. 그것들은 만남과 대화를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적 관계의 영역을 확장하지만, 동시에 그 관계들을 사적인 것으로 만들 뿐이다. 말하자면, 그것들은 세계화하면서도 오히려 특수화하고 있는 것이다.

제시문 <라>

제2의 구술성(secondary orality)과 관련된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공동체 의식의 감소를 가지고 온다는 이론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 세계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도시별 디지털 매체 사용량과 공동체 의식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디지털 매체 사용량은 전자우편(e-mail)과 협업 소셜미디어(collaborative social media)* 중 하나를 매일 이용하는 도시민의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공동체 의식의 점수는 설문조사를 통한 해당 도시 거주자들의 평균으로 측정되었다. 그 점수의 범위는 0점부터 100점이다. 이 연구 결과, 조사된 도시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매체 사용량이 3% 증가할 때 공동체 의식 점수가 평균 10점 하락하였고, 이 감소량은 정규분포를 따랐다. 단, 거주자가 500만 이상인 대규모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이 정규분포의 표준편차는 5점이었으며, 아시아 도시

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10점이었다.** 서울시는 디지털 매체의 사용 증가에 따른 공동체 의식의 감소를 막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로 하였다. 이 대책을 위해 서울시가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한 결과, 서울 시민들의 전자우편과 협업 소셜미디어 사용량이 1년 후에 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협업 소셜미디어는 위키피디아, 네이버 지식iN 등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지식생산에 기여하는 소셜미디어를 의미한다.
** Z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P(|Z| \le 0.50) = 0.383$, $P(|Z| \le 1.00) = 0.6826$, $P(|Z| \le 1.65) = 0.90$, $P(|Z| \le 1.96) = 0.95$
$P(|Z| \le 2.00) = 0.9544$, $P(|Z| \le 2.58) = 0.99$, $P(|Z| \le 3) = 0.998$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00자 내외, 50점)

1-(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1-(2)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 각각의 관점에서 다음의 사례를 평가하시오.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뉴욕 여성의 삶과 사랑을 그려낸 미국 TV 드라마가 한때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드라마는 대만의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서도 매우 환영받았다. 그들은 인터넷 게시판에서 드라마 내용에 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여성에게 정숙함과 자기희생을 기대하는 대만의 문화적 전통은 그 당시 여성 경제력 증가와 그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드라마는 이른바 '바람직한 여성'이 되어야 하는 의무와 더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생활양식을 원하는 욕망을 절충하려는 대만 여성들에게 문화적 대안을 제공했으며, 남성 지배적 세계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찾기 위한 투쟁에 영감을 제공했다. 다른 한편, 여성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감각적 세계를 즐기며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도 드러냈다. 한 여성은 인터뷰에서 이 드라마의 교훈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 2. 제시문 <라>를 근거로 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00자 내외, 50점)

2-(1) 제시문 <라>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서울시를 거주자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를 아시아 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가 서울시 대책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2-(2) 제시문 <라>의 연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표 2], [표 3] 각각을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에서 평가하시오. (표 안의 숫자는 해당 도시의 수를 의미한다.)

[표 1]

이메일 사용량	**공동체 의식**		
	낮다	높다	합계
많다	432 (54.1%)	367 (45.9%)	799 (100%)
적다	482 (63.3%)	279 (36.7%)	761 (100%)

[표 2]

독서량	**공동체 의식**		
	낮다	높다	합계
많다	428 (49.7%)	434 (50.3%)	862 (100%)
적다	486 (69.6%)	212 (30.4%)	698 (100%)

[표 3]

협업 미디어* 사용량	**공동체 의식**		
	낮다	높다	합계
많다	341 (51.0%)	327 (49.0%)	668 (100%)
적다	573 (64.2%)	319 (35.8%)	892 (100%)

* 협업 미디어는 제시문 <라>에서 설명한 협업 소셜미디어를 의미한다.

출제의도

1. 출제의도

<전체 문항 출제의도>

1. 이번 연세대학교 인문/사회계열 모의논술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수험생들의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려는 다면사고형 논술시험의 취지에 맞게 구성되었다.

2.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구술성'을 '문자'와 '지식의 발전' 등과 관련지어 사고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통합적인 문제로 구성하였다.

3. 제시문은 교과서에서 발췌하거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제 및 내용에 준하여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습득한 다양한 주제와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교과서 지문들에 익숙한 수험생이라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했다.

4. 간단한 표를 통합하여 해석하는 능력과 이를 다른 제시문들과 연관지어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확률과 통계]에서 다루는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 정규분포와, 표준정규분포에 대한 이해를 실제 실증자료와 연관지어 평가한다.

<문제2 출제의도>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고, 실증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표를 다른 제시문들과 연관지어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2. 문항해설

문제 1-(1)

제시문 <가>에서 소크라테스는 글쓰기가 지식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다. 그는 그 근거로 글이 독자와의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들며, 상대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보이는지에 따라 유연하게 논증을 펼치려면 대화(말)로써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다>는 이와 상반된 입장을 지니는데, 이는 두 제시문이 각기 다른 시대에 쓰였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는 글쓰기의 여러 형식 가운데 서신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19세기 사회주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했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서신은 소크라테스가 주목하는 글과 달리, 독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사유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의 매체를 통한 현대의 대화(말)는 토론이나 논쟁보다는 친목과 사교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제시문 <가>와 <다>는 모두 상호작용과 토론을 통해 지식이 발전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근대로 넘어 오면서 대화를 통한 논쟁보다는 글쓰기와 서신 왕래를 통한 의견 교류가 늘어났기 때문에 글쓰기가 지식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견해는 서로 달라진 것이다. 한편 제시문 <나>는 구술을 '자연적', 글쓰기를 '인공적'이라고 설명하지만 글쓰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지닌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말을 통해 글을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글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과 예술을 심오하게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글을 통해서만 인간의 최고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 1-(2)

제시문 <나>와 <다>는 기술 발달로 인해 새로 등장한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의 작용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다.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는 제2의 구술성과 관련된 매체인 텔레비전이 개개인을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그에 따르면, 대만 여성들은 텔레비전 드라마가 전달하는 가치와 교훈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적용시켜 내면화할 수 있었고,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소통 창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서로 연대하며 활발히 상호작용했다. 반면 제시문 <다>의 입장에서는 텔레비전이 각각의 개인에게 고립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적인 욕망 충족에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 공동체 의식의 증진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텔레비전 드라마가 대만 등 세계 곳곳의 시청자들에게 수용된다는 점에서 텔레비전은 세계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간단하고 즉흥적인 논의들은 대중이 서로 깊이 있게 사고하고 소통하며 연대하도록 만들지는 못하므로, 텔레비전이 세계시민주의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 2-(1)

제시문 <라>는 서울시의 특성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연구의 결과로 얻어지는 표준편차가 달라짐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를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5점이며, 서울시를 아시아 도시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표준편차가 10점이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평균적으로 디지털 매체의 사용량이 3% 증가할 때 공동체 의식의 점수가 10점으로 하락하지만, 대규모 도시로 가정하는 경우보다 아시아 도시로 가정하는 경우에 표준편차는 2배로 커지게 된다. 따라서, 대규모 도시로 가정하는 경우에 예상되는 공동체 의식 점수의 하락이 평균을 중심으로 더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 대책은 더 큰 확실성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다.

문제 2-(2)

문제2-(2)는 이메일 사용량, 독서량, 협업 미디어 사용량과 공동체 의식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를 제시문 <나>, <다>와 연결해서 분석하기를 요구한다. [표 1]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메일 사용량이 적어지면 공동체 의식도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제시문 <나>에서 설명하는 글쓰기나 literacy, 또는 제2의 구술성(secondary orality)의 중요성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 1]의 결과는 제시문 <다>에서 이야기하는 전자우편이 세계시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표 2]를 살펴보면, 독서량이 적은 경우, 독서량이 많은 경우와 비교해서 공동체 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시문 <다>에서 강조하는 서간 문학이나 글쓰기의 중요성과 연결된다고 하겠다. [표 3]의 경우, [표 1]과 유사하게 협업 미디어의 사용이 공동체 의식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표 3]이 [표 1]과 다른 점은 협업 미디어가 이메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협업 미디어가 이메일에 비해 제시문 <나>에서 강조하는 제2의 구술성(secondary orality)에 더 적절한 미디어임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3. 채점기준

문제 1-(1)

글쓰기와 지식 발전에 관한 세 지문의 주장 가운데 하나 이상을 정확히 요약, 기술하지 못함: **하**
세 지문의 주장을 정확히 요약, 기술했으나, 체계적인 비교나 분석이 미흡함: **중**
세 지문의 주장을 정확히 요약, 기술하고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해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제시함: **상**

문제 1-(2)

제시문 <나>, <다>의 관점을 문제의 박스 내용에 적절히 연결, 적용하지 못함: **하**
제시문 <나>, <다>의 관점을 박스 내용에 연결했으나 제대로 대비시키지 못함: **중**
제시문 <나>, <다>의 관점을 박스 내용에 체계적으로 연결해 해석하고 구체적으로 대비시킴: **상**

문제 2-(1)

표준편차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 **하**

제대로 이해한 표준편차의 개념을 제시문 <라>에서 제시한 연구결과와 연결지어 설명함: **중**

표준편차와 평균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서울시 대책과 관련된 의미있는 답안: **상**

문제 2-(2)

[표 1], [표 2], [표 3]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함: **하**

[표 1], [표 2], [표 3]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를 제시문 <나>, <다>와 연결지어 설명함: **중**

[표 1], [표 2], [표 3]을 제대로 이해할 뿐 아니라 [표 1]과 [표 3]의 결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며 제시문 <나>, <다>와 적절히 연결시키는 답안: **상**

답안사례 평가

문제 1-(1)

[좋은 답안의 예]
제시문(가)는 테우트와 타무스의 일화를 들어 글쓰기가 지식 발전을 막는 장애물이라는 입장을 보여준다. 앎을 형상화한 문자는 그림과 같이 고정된 시각적 이미지일 뿐 그것이 상황에 맞게 누군가와 상호 소통할 수도 없으며, 문자 사용으로 인해 사람들은 스스로 기억하려 하지 않고 문자에 의존하여 무언가를 상기할 뿐이라는 것이다. 반면 제시문(나)와 (다)는 글쓰기가 지식 발전을 촉진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제시문(나)는 인공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글쓰기가 지식을 기록, 축적하고 전달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을 고양하고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제시문(다)는 19세기 사회주의자들의 서신 교환의 예를 들어, 글쓰기가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글쓰기를 통해 그들은 사고를 합리화하고 체계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진정한 소통을 통해 사람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 지식인들의 창조성을 꽃피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가)와 제시문(다)는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 지식이 발전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지만, 제시문(가)는 그것이 말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면, 제시문(다)에서는 말을 통한 일시적 대화와 달리 서신 교환과 같은 진지한 글쓰기를 통해 진정한 소통과 사유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 것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설명]
문제의 요점을 잘 파악하고, 각 제시문에서 이와 관련된 주장을 상당히 정확히 파악하였다. 우선 글쓰기가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의 여부에 따라 제시문(가)와 제시문(나)(다)를 구분하고, 제시문 안에서 그 근거를 잘 찾아내 요약했다. 아울러 제시문(가)와 제시문(다)에서 '상호작용과 소통'이 지식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 공통적이면서도, 글쓰기가 그 소통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는 점까지 포착하여, 한층 깊이 있고 입체적 분석을 한 점이 돋보인다.

[좋지 않은 답안의 예]
(가)에서는 테우트와 타무스의 대화를 통해 글쓰기의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테우트는 문자의 아버지로서 글을 통한 배움이 훌륭하다고 하고 있지만 타무스는 문자가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해서 진정으로 배웠다고 착각하게 만든다고 하고 있다. (나)에서는 원래 말하고 쓰는 것은 인공적이라고 말하며 글쓰기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은 말하기 기법보다는 쓰는 활동이 더 학습이 잘된다고 하고 있다. (다)는 19세기 감옥처럼 현대에도 자발적인 자택감금을 하여 의사소통을 많이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19세기에 좋은 영향을 끼쳤던 글쓰기는 오늘날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사적인 것이 되었다고 하고 있다.

[설명]
이 답안의 경우 우선 각 제시문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 기술하지 못하였다. 우선 제시문(가)의 경우 소크라테스와 파이드로스의 대화를 통해 제시문(가)의 전체적 주장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삽화로 들어간 테우트와 타무스 각각의 주장을 단순히 병렬하였다. 또한 제시문(나)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확한 독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시문(다)에 대해서도 오독한 흔적이 보인다. 게다가 질문의 요점인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에 대한 각 제시문의 입장이 어떠한지에 대한 답이 뚜렷이 제시되지 않았다.

문제 1-(2)

[좋은 답안의 예]
(나)의 입장에서는 이 사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전자 매체가 글쓰기의 도움을 받아 대만 고학력 여성들이 자의식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했다. 그들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그들의 의식이 가진 가능성을 최대한 실현하고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대만 여상들 간의 공동체 의식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 이 사례는 바람직하다. 또 텔레비전을 통해 미국의 정서적 문화가 대만의 정서적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다)의 입장에서는 이 사례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글은 전달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말하기의 성격을 더 많이 띤다. 따라서 대만 여성들의 토론은 서로의 사고에 대해 진정한 논쟁을 벌이

는 것이 아니며, 일관적인 이론들을 정립할 수 없는 대화이다. 즉 그들의 대화는 사적인 영역을 확장시키며, 텔레비전의 드라마를 통해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과정 또한 세계민주주의를 해하는 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례는 세계 시민 간의 대화를 활성화시키지만 진정한 공동체의 연대는 이루지 못하게 하는 전자 기술의 악영향을 보여준다.

[설명]
기술 발달로 인해 새로 등장한 TV라는 매체의 작용에 대해 제시문 (나)와 제시문 (나)가 취하고 있는 상반된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또 이를 토대로 대만 고학력 여성들 사이에 인기를 끌었던 미국 TV 드라마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함으로써, 제시문 (나)의 경우 미국 TV 드라마가 지구촌의 형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동체 의식의 추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반면, 제시문 (다)의 경우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상호작용이 세계시민주의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기 힘들다는 점을 잘 분석하고 있다.

[좋지 않은 답안의 예]
사례에 대한 (나)의 의견은 드라마가 영감, 대안을 제공하며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영향을 미치고 공감을 불러왔다. (다)의 의견은 드라마를 통해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접근이 빨라서 인식 변화가 더 쉽게 일어난다고 하고 있다.

[설명]
이 답안은 제시문 (나)와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사례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했다. 제2의 구술성과 관련된 매체인 TV가 개인들을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주목하는 제시문 (나)의 견지에서 보자면, 대만 여성들은 TV 드라마가 전달하는 가치와 교훈을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적용시켜 내면화할 수 있었고, 인터넷 게시판과 같은 소통 창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소유한 채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연대한다고도 볼 수 있다는 점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 더욱이, TV가 개인들에게 고립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데 그치므로 사적인 욕망충족에만 긍정적인 작용을 할 뿐 공동체 의식의 증진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제시문 (다)의 관점도 이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했다.

문제 2-(1)

[좋은 답안의 예]
낮은 표준편차에서 알 수 있듯이, 대도시로 여기는 경우가 아시아 도시로 여기는 경우보다, 좀 더 확정적으로 공동체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공동체 의식 감소의 정도가 좀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도시로 가정하는 경우보다 대도시로 가정하는 경우에, 공동체 의식이 감소할 가능성이 더 확실하다고 여길 수 있다.

[설명]
표준편차의 크기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좋지 않은 답안의 예]
제시문 [라]는 제2의 구술성과 관련되 디지털 매체의 사용과 공동체 지수의 관계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매체의 사용량이 3%증가하면 공동체 의식은 10점이 내려가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서울시가 500만 이상의 대도시라면 표준편차는 5점이 된다. 또한 표준펀차가 적을수록 정규분포 그래프의 정점은 낮아진다. 대규모 도시보다 아시아 도시로 보았을 때가 더 광범위하므로 좀 더 파급력이 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르게 이야기 하자면 대규모 도시라는 측면보다 아시아 도시라고 보는 측면이 더욱 공동체 의식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끝으로 연세대학교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

[설명]
위 답안은 문제지의 지문을 다시 부연, 요약하고 있음. 또한 표준편차가 적을수록 정규분포 그래프의 정점은 낮아진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함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음. 또는, 대규모 도시보다 아시아 도시로 보았을때가 더 광범위하여 좀 더 파급력이 강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도시로 접근하는 경우가 아시아

도시로 접근하는 경우보다 더욱 공동체 의식이 낮아진다는 서술은 잘못된 서술이다.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답안 이외의 모든 서술은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이다"는) 응시자 본인을 알릴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0점 처리가 아니라 아예 결격사유가 되어 불합격 처리가 됨을 주의하여야 함.

문제 2-(2)

[좋은 답안의 예]
[표 1]은 이메일 사용량이 적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낮고,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이메일 사용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나)의 측면에서 보면, 미디어의 발전, 즉 기술의 발전이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의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제시문 (다)와 [표 1]은 서로 대조됨으로써 둘은 함께 성립할 수 없다. [표 2]의 경우, 독서량이 많을수록 공동체 의식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독서량이 적을수록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높다는 것과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 즉, 독서량의 증대는 공동체 의식 함양의 증대를 뜻한다. (나)는 인위적으로 쓰여진 글을 말로 혹은 눈으로 읽는 독서를 통해 완전한 잠재성이 실현된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의 관점도 미디어를 통한 독서가 아닌 고전적 방식의 글 읽기는 많은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게 함으로써 최상의 도덕적 자각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표 3]은 협업 미디어의 사용이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다. 제시문 (나)는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지식 생산에 기여하는 협업 소셜미디어가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제2의 구술성을 띠는 디지털 매체들이 구두의 표현을 더 잘하게 이끔으로써 공동체 의식에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다. (다)는 일반 디지털 매체와 달리 협업 미디어는 여러 일반인들이 참여하여 그들이 독자적으로 지식을 형성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면 그 관계가 단순히 소수가 주고받는 감정표현과 대화형식이 아니라면, 그들이 주고받는 말과 표현이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다.

[설명]
이 답안은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각각의 표와 제시문 (나), (다)의 주장을 연결시키는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각각의 표에서 나타난 이메일 사용량, 독서량, 협업 미디어 사용량과 공동체 의식간의 관계를 제시문 (나), (다)의 관점에서 긍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이메일 사용량과 협업 미디어 사용량이 제시문 (나), (다)의 주장과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적절히 설명하였다. 추가로 [표 1]의 이메일 사용량과 [표 3]의 협업 미디어 사용량이 공동체 의식 변화에 어떠한 차이를 주는지를 포함하였다면 출제 의도에 아주 가까운 답안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좋지 않은 답안의 예]
제시문 (라)의 연구결과를 보면, 세 표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메일, 독서량, 협업 미디어 사용량이 적고 공동체 의식도 낮은 이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많고 높은 이는 가장 적었다. 이메일과 협업 미디어 사용량을 크게 제2의 구술성, 독서량을 제1의 구술성으로 치환해보자. 표 3개에는 공통점도 있으나, (다)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두, 세 번째 순위의 차이라는 것에 집중할 것이다. 독서량이 많고 공동체 의식이 높은 사람이 이메일이나 디지털 협업 사용량이 많고 공동체 의식이 높은 사람보다 100여명 넘게 많았다. 이는 제1의 구술성이 제2의 구술성보다 공동체 의식 제고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함의한다고 볼 것이다. 반면 (나)는 제1의 구술성이든 제2의 구술성이든 공동체 의식이 높은 이들은 646명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미디어든 글이든, 의식의 재현 자체가 지식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주목할 것이다. 구술의 모방과 공동체 의식의 비례 관계에 초점을 둘 것이다.

[설명]
이 답안의 경우 [표 1], [표 2], [표 3]이 제시하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였다. 즉, 각각의 표에서 이메일 사용량, 독서량, 협업 미디어 사용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공동체 의식이 어떻게 다른지의 관계를 살펴보지 못하고, 사람 숫자만을 통해 제1의 구술성이나 제2의 구술성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평면적인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이메일과 협업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공동체 의식의 차이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각각의 표를 제시문 (나)와 (다)에서의 주장에 견주어 설명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검토교사 의견

[교사 A 검토의견]

국어의 독해 능력과 사회 문제 분석능력 및 영어 독해 및 이해 능력과 수학적 사고 능력까지 다면적인 사고능력을 갖추고, 각각의 능력들을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문제이다. 그간의 논술에 비해 학생들이 문항을 해결해야 하는 사고의 범주가 확장되었다는 것이 확연한 차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고의 범주 확장이 난이도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듯하다. '구술성'과 '문자' 및 '지식의 발전'은 국어 교과의 바탕이 되는 개념이고, 사실 모든 언어의 본질과 연계되는 것으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영어 지문인 (나)에 사용된 단어와 문장의 형태도 평이하여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제시문 (가)에서는 '말'과 '글'을, (나)에서는 '말'과 '글'의 차이 및 '제1구술성'과 '제2구술성'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의 방법은 국어의 설명의 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쉽게 적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제시문 (다)에서는 '서간문학'과 '전자우편'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밝히고 있다. 이는 문항 1-(2)를 해결하는데 바탕이 되는 것으로, 학생들이 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전자우편'의 특성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기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제시문들과 연관된 개념의 설문조사 비율로 구성된 제시문 (라)는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의 연세대학교 논술 문항이 상당히 평이하고, 사회와 문학 부분에 치우친 면이 강했다면 이번 모의 논술은 보다 다양한 영역에 대한 지식들을 종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데서 좋은 평가를 받을만하다. 여러 영역에 관한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이지만, 그것이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융합하고 종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면사고형에 보다 접근한 형태로 융합적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적합한 문항 형태로 보인다.

[교사 B 검토의견]

제시문 <나>는 고교 영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평이한 수준으로 재구성되어 있다.

우선 사용된 어휘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1, 2학년 교육과정의 지정 어휘이고, 고교 영어 어휘로 지정되지 않은 단어에는 각주를 통해 그 정의가 설명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설사 보충 설명이 없는 어휘라 해도, 그 개수가 적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다.

어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해도 이들을 맺어주는 어법에 대한 지식이 충분치 않으면 그 의미를 완전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제시문 <나>에 사용된 어법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어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절이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해도 그리 길지 않으며 구조가 매우 간결하다.

고등학생들이 수능 지문을 읽으며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불충분한 배경 지식에서 오는 난해함이다. 이는 어휘와 어법에 관한 언어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도 단기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다. 제시문 <나>에서 핵심 소재로 등장하는 'primary orality'와 'secondary orality'는 단순한 번역을 넘어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용어들인데, 두 번째 문단에서 두 가지 용어의 정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한 낯선 용어이지만 그 의미가 '라디오, TV, 소셜 미디어' 등의 현대 매체와 관련되어 있어 쌍방향적 의사소통에 익숙한 현 세대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 C 검토의견]

1. 제시문 분석

제시문<가>는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면 문자보다는 구술과 대화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글이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대화 상황이 제시된 글이어서 다소 당황스러울 수는 있으나 내용 수준은 평범하다. '말,

문자, 글쓰기, 지식, 지혜' 등 핵심어가 뚜렷이 드러나 있고 비교 대상을 대립시켜 그 특성을 쉽게 풀어 쓴 글이어서 독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어Ⅰ'이나 '국어 Ⅱ'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대화상황에 맞는 듣기와 말하기를 교육하도록 하였고, 이 과정에서 대화의 원리를 이해시킬 것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제시문의 요점은 학생들에게 이미 익숙한 내용이다.

제시문<나>는 자연적으로 획득하는 구술에 비해 인위적으로 습득해야 하는 글쓰기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글쓰기의 긍정적 영향력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문에 의하면, 글쓰기는 구술의 도움을 받아 인간 의식을 고양시키고 잠재력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글쓰기와 구술은 대립적 관계가 아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확산된 제2의 구술성을 전통적인 구술성과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제2의 구술성의 특징으로는 '큰 집단으로의 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였다. 이 제시문은 영어로 쓰여 있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까다로움을 느낄 수는 있겠으나 어려운 어휘가 없고 핵심내용도 문장 단위로 드러나 있다. 집중력을 발휘하면 내용 이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어 Ⅱ' 교육과정에서는 매체에 따라 의사 표현 및 자료의 수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비판적 분석 및 책임감 있는 글쓰기를 교육하도록 강조하였다. '문학'에서는 문학을 통해 세계와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글과 인간 정신의 관계를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내면화해왔다. 제시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부가적인 지식 정보가 필요치 않으므로 영어를 해석했다면 그 요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시문<다>는 서신과 같은 글쓰기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나 지식의 공유 및 사유의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사회주의자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도 국경을 넘는 정치적 연대와 사상의 창조를 이루어낸 것을 서신 교환에서 찾고 있다. 서신의 비교 대상은 전화, 텔레비전, 전자우편, 휴대전화 등 현대 미디어들이다. 이 미디어를 통한 구어체의 말들은 사람들을 즉흥적으로 만들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며 고립된 개인을 양산함으로써 공동체의 연대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학생들은 '화법과 작문' 교육과정에서 말과 글을 통한 사회적 의사소통의 성격과 기능을 배웠고 의사소통에 작동하는 사고 과정을 성찰해왔다. '문학' 교육과정에서도 문학이 공동체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배워왔다. 또한 '독서와 문법'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독서 매체의 특성을 이해할 것과 시대에 따라 달라졌던 글쓰기의 특징 및 그 사회적 맥락을 학습했다. 그 밖에 사이버 공간에서의 정보 이해 및 표현과 관련하여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에서도 특징과 쟁점을 살펴보도록 하고 있다. 교과서에서 발췌된 제시문은 아니지만 여러 교과를 통해 다각도의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본 내용이므로 무난하게 글의 요점을 이해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공동체 의식의 감소를 가지고 온다는 이론의 검토 및 연구 과정을 안내하고 있다. 검토되어야 할 가설이 한 가지 뿐이고, 조사 대상의 조건과 변수가 간단하여 학생들이 내용을 정리하는데 드는 시간을 단축시켜 주었을 것이다. 또한 평균, 표준편차, 정규분포는 '확률과 통계'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일 뿐 아니라 학생들이 그 값을 직접 구할 필요도 없고 매우 간략한 수치로만 제시되어 있어 심리적 부담감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2. 문제 분석

<문제 1-1>은 <가>, <나>, <다>에 나타난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글쓰기'와 '지식 발전'이라는 논점을 제공하여 비교와 분석의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학생들이 우왕좌왕할 여지를 차단한 점에서 제시문을 재독할 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관점'을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얼마나 제시문을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읽었는지를 가려낼 수 있어서 변별력을 갖추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주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문을 독해한 학생일수록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문제1-2>는 <문제1-1>에서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례를 평가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학생들은 대만 여성들이 한 미국 TV 드라마를 본 후 보였던 반응양상을 분석해야 한다. 대만 여성들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활발한 토론을 벌이면서 새로운 가치관 및 주체성을 정립을 위해 대안을 찾는 모습은 <나>의 '큰 집단으로의 통합과 연대 의식'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여성들의 감각적 문화와 개인주의적 행동 추구가 내면화된다는 점에서는 <다>의 '즉흥적 문화과 고립된 개인으로 인한 연대의 실패'와도 연결될 수 있다. 제시문의 요점을 현실의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력과 내용 소화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기에 적절한 문제로 보인다. 또한 대만 여성들의 반응 양상이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어서 특별한 선행 지식 없이도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문제2-1>과 <문제2-2>는 제시문과 [표]에 주어진 내용을 활용하여 논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퍼즐을 맞추는 문제

이다. <문제2-1>은 <라>에 서술된 간단한 조건과 변수를 활용하여 서울시의 대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였다. 논제의 질문에서 서울을 두 가지 상황으로 간결하게 정리한 후 각각의 경우를 다루라고 하였는데 주어진 조건이 간단하여 상관성을 추론하는 사고의 과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다. <2-2>에서도 3개의 [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3개의 범례를 의미할 뿐 '공동체 의식'과의 상관성을 살피는 것은 동일하므로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무게보다 가벼워 보인다. 다만, [표]를 해석하는데 그치지 말고 <나>, <다>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하므로 앞의 <문제1>에서 분석했던 내용과의 연관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미 서술한 내용을 활용하여 연관 짓는 것이어서 새로운 어려움은 없겠지만 짜임새 있게 서술하는 데서 학생들의 실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평소 주어진 자료를 읽고 암기하는 데 머문 학생들 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짧게라도 글로 표현하는 데 익숙한 학생에게 더 수월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3. 총평

전체적으로 제시문과 질문에서 드러난 논점이 뚜렷하고 주제 문장이 분명하여 학생들이 읽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철학자의 대화글, 영어 제시문, 수학교과의 용어를 보고 다소 긴장한 학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수업에서 두루 다루었던 공통 주제가 선정됨에 따라 글의 핵심개념과 요지가 익숙했기 때문에 내용 이해시 금새 적응이 가능했을 것이다. 논제에서도 학생들이 글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사고의 단계를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질문들이 잘 구성되었다. 무엇보다 이 문제의 경우 다각도로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글을 잘 쓰는 학생이 유리했을 것이다. 평소 수업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그것을 글로 꾸준히 써본 학생들에게 더 쉽게 다가왔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 D 검토의견]

학교에서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를 표준화하여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논술문제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다루는 것 같다. 해석하는 부분은 교육과정 상 충분히 가능하다.